



2일차 공연팀

챔버앙상블

19.8.31.토요일

클나무챔버앙상블은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 소속앙상블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앙상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수의 초청 연주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음악회 등에 참여하고 있다.



3일차 공연팀

브라스앙상블

19.9.1.일요일

트럼펫, 호른, 트롬본, 튜바, 타악기로 구성되어 있는 브라스 앙상블은 화려하고 웅장한 선율로 전 관객들이 화합 할 수 있는 앙상블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재미를 더 한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클래식을 벗어나 흥미와 재미를 함께 관객들과 호흡하고 스토리가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 연주를 통하여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한다.

공연 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8,30(금) 1일차	16시~17시	60"	리허설	
	17시~18시	60"	공연 오케스트라&성악(35인조)	
8,31(토) 2일차	14시~15시	60"	리허설	
	15시~16시	60"	공연 스트링&목관&건반&드럼(14인조)	
9,1(일) 3일차	14시~15시	60"	리허설	
	15시~16시	60"	공연 브라스&드럼(10인조)	

찾아오는 길

| 철 도 용산역→김제→부안버스터미널→유천리(버스이용1시간)

| 버 스 서울에서 3시간, 대전에서 2시간, 광주에서 1시간

| 승용차 ·호남고속도로

정읍 → 701번 지방도 → 줄포들어가기전(우회전)

→ 부안방면23번국도(우회전) → 영전사거리30번국도

→ 부안청자박물관

·서해안고속도로

줄포IC → 줄포들어가기전(우회전) → 부안방면23번국도(우회전)

→ 영전사거리30번국도(좌회전) → 부안청자박물관



부안청자박물관 T 063-580-3964 F 063-581-3960
Buan Celadon Museum www.buancela.go.kr

56330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청자로 1493(유천리 798-4)

2019 제4회 부안청자박물관 음악회

**유천아,
청자랑
놀자!~**



부안청자박물관
Buan Celadon Museum



부안청자박물관

천년 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고려황실용 상감청자 생산을 관할한 "고려시대 관요"였던 이곳 전북 부안군 보안면 유전리에 2011년 4월에 "부안청자박물관"을 개관하여 전시실 총6실과 부대시설 총3개를 갖춰 부안군이 직접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제1종 전문박물관이다.

전시동 1층은 고려청자 제작과정을 볼 수 있는 제작실, 놀이와 체험을 통해 청자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실, 국내·외 박물관과 교류전 등 각종 특별전시를 위한 기획전시실, 부안청자 이야기를 4D 애니메이션으로 상영하는 특수영상실로 구성되어있다.

전시동 2층은 진품의 고려청자가 전시되어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명품실, 청자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실로 갖춰져 있다.

체험동 2층 도예체험실에서는 1일 4회에 걸쳐 체험객 누구나 만들어볼 수 있는 도자기 제작방법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체험객이 만든 작품을 소중한 다뤄 1,300도 내외에서 도자기로 완성하는 가마소성실이 1층에 있다.

야외사적공원에는 천년 전 고려청자를 구워냈던 가마터를 1998년 발굴 조사하여 출토된 가마와 유물을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2기의 가마보호각이 있고, 민간 도예가들의 작품활동을 지원하는 도예창작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

또한 부안군에서는 유구한 천년 유적지와 유물을 계승, 발전 시키고자 청자여의두문2인반상기, 청자기와수저받침, 청자상감국화문잔 등 부안군 자체개발 상품을 올 7월부터 제작·판매하고 있으며 부안청자유적지구를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기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1일차 공연팀

클나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9.8.30.금요일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 Clamu Philharmonic Orchertra는 Classic Music의 줄임말로 클래식 전공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민들에게 클래식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며 급여를 주는 운영방식으로 전라북도 최초 민간 오케스트라단이다. 2009년 4월 창단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금남세 지휘로 시작하여 년 40회~50회의 연주회(정기+기획+초청)를 하고 있다.

특히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 초청연주회(2011.7), 폴란드 피아니스트 쇼팽 국제 콩쿨 수상자 초청연주회(2017.10), 불가리아 천재 피아니스트 이반돈체프 초청연주회(2012.6), 11월 대중가수 주현미 대중가요와 클래식 융·복합콘서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10년기념 사운드포레스트(2013.6), 소리꾼 장사익 초청공연(2014.2), 천지창조(2014.3), 금남세의 세계 최초 신개념 음악극 CARNIVAL Of Music(2014.5), 가수송대관 버라이어티쇼(2014.6), 카운트테너 루이스초이 콘서트(2014.7), 35사단군군장병위문콘서트(2014.8), 북119소방공무원위문콘서트(2014.10), 뮤지컬 사운드오브뮤직(2014.11), 가수진성콘서트(2015.5), 가수 박강성 초청공연(2015.9), 전막발레 호두까기인형(2015.11),

스타강사 김창옥 토크콘서트(2016.7), 가수박상철 초청공연(2018.8), 독도음악회(2016.10), 한·일 교류음악회 가나자와시 초청연주(2016.12), 가수 마야 초청공연(2016.10),창작뮤지컬 정글로간 해적(2016.12), 가족의달 융·복합콘서트 소리꾼 남상일(2017.5), 배우 김수로·강성진과 함께하는 세계 뮤지컬 페스티벌 콘서트(2017.7), 창작공연 샌드아트 눈보라(2017.11),전막발레 호두까기인형(2017.12), 가수 심수봉 송년음악회 (2017.12), 광복절기념음악회 가수최진희 초청공연(2018.8), 무주반딧불축제 with 송소희, 세종시교류음악회(2018.9), 완도초청공연 with 노사연(2018.10), 전국상주단체페스티벌 초청연주회(2018.11), 헨델메시아(2018.12), 열린음악회 가수김용임 콘서트(2019.6), 창작뮤지컬 살아있는 박물관(2019.7)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많은 주목과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라북도 최고의 오케스트라로서의 자부심과 실력으로 언제나 새로운 공연을 기획하여 모두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며 도민과 함께 하는 오케스트라로 다가가겠습니다.